

- **주요 뉴스:**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경제 및 정치적 여건을 모두 고려할 전망
 - 연준 월러 이사, 고물가 지속 시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의 가속화가 필요
 - ECB 총재,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긴축 강화는 피할 방침
 - 중국 인민은행 자문위원, 준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진입 가능성을 경고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여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1.0%],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와 빅테크주 강세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0월 양호한 소매매출 결과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4%,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유럽의 경제 봉쇄 조치 등이 배경
 독일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8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0.5% 상승, 한국 CDS 보합

		11/19일	11/12일	전주말대비			11/19일	11/12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698.0	4,682.9	0.32%	국채 금리 10y	미국	1.55%	1.56%	-1bp
	유럽	486.08	486.75	-0.14%		독일	-0.34%	-0.26%	-8bp
	중국	3,560.4	3,539.1	0.60%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746	29,610	0.46%		중국	49bp	52bp	-3bp
	한국	2,971.0	2,968.8	0.07%	위험 지표	EMBI+	380	371	9bp
환율	달러지수	96.03	95.13	0.95%		VIX	17.91	16.29	9.94%
	유로화	1.1290	1.1445	-1.35%		WTI유	76.10	80.79	-5.81%
	엔화	113.99	113.89	-0.09%	원자재	구리	440.8	445.0	-0.94%
	위안화	6.3871	6.3797	-0.12%		금	1,845.7	1,864.9	-1.03%
	원화	1,185.3	1,179.6	-0.4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경제 및 정치적 여건을 모두 고려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한 발언과, 과거의 경우 의장의 연임이 관례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파월 현 의장의 재임명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
- 그러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은행규제, 기후대응 등을 강조하여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보다 더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
- 민주당 인사들도 의견이 양분. 워렌 상원의원은 기후대응 등에 소극적이라며 파월 의장을 비판했고, 인플레이션 대응이 미흡하다고 의견도 제기. 하지만 엘런 재무장관은 코로나 19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며 파월 의장의 연임을 지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월러 이사, 고물가 지속 시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의 가속화가 필요

- 고용의 개선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2022년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 또한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한다고 해도 2013년과 같은 탠트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 전 재무장관, 순조로운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은 15%에 불과

- 서머스 전 장관은 얼마 전까지 해당 확률을 50%로 판단. 하지만 지금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 혹은 경기악화 확률이 높아졌다고 평가

■ Allianz의 CEO, 금융 시스템은 점차 위험도가 증가

- 올리버 비테 CEO는 자동차 및 하이테크 기업의 과도한 주가 상승, 은행규제 약화 등이 위험관리 관련하여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 또한 2020년 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금지 명령은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비판

■ 영란은행 총재, 최근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 관련 혼합된 신호를 발신

- 베일리 총재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12월 금리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다만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첨언

■ ECB 총재,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긴축강화는 불필요

-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의 물가상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독일 중앙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역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발언. 이에 ECB가 완화정책 유지를 위해 어떠한 형태의 결의를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자문위원, 준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진입 가능성을 경고

- 리우 시진 위원은 중국 경제가 상대적 저성장과 과도한 생산자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준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 지금과 같은 수요 부진, 생산자물가 상승, 기업이익 감소 등이 지속되면 해당 위험은 현실화된다고 첨언

■ 인민은행 통화정책 보고, 유연하고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을 유지

- 통화정책 시행에서 경제성장과 위험관리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 전체의 안정을 위해 현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중국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

■ 중국 외환당국, 투기적(speculative) 외환거래의 제한을 촉구. 위안화 강세 방지가 목적

- 외화거래위원회는 위험 중립 차원에서 위안화 거래를 해야 하고, 자기자본 거래 등에 대해서도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번 조치는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위안화 가치가 추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19 현지시각 기준)

- 영국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14, 10월(-17), 예상치(-18)
- 일본 10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0.1%, 9월(0.2%), 예상치(0.5%)

■ 주요 경제 이벤트(11/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잠정주택판매, 11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 유로존 11월 소비자신뢰, 기업여건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양국 간 자본 전쟁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 - Financial Times

(Key US commission heralds coming capital wars)

- 의회 내 초당적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양국 간 사업에 대해 다수의 새로운 제한 조치를 권고. 이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 및 국가통제를 강화하면서 외국 자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
- 이번 권고안에는 가변이익실체(VIE) 모델 사용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미국 내 상장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개입 여부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 또한 중국 자산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의 보호를 강조
- 그 동안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사안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한다면, 자본투자 관련 양국 간 갈등도 향후 증폭될 우려

■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 현대통화이론(MMT) 수용이 필요한 시기 - WSJ

(Modern Monetary Theory Isn't the Future. It's Here Now)

- 최근 통과된 인프라 법안은 본질적으로 재정적자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MMT가 이번 결정에 적용되었다는 의견이 존재. 연준은 고물가를 우려하여 통화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MMT 측면에서는 실제 물가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국채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수 확대 등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미국 노동시장 회복, 지역별 경제 정상화 불일차조기 은퇴 증가 등이 저해 - 블룸버그

(Employers Are Hiring. Why Are So Many Workers Holding Back?)

■ EU 재정규칙,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술적 조정보다 정치적 합의가 중요 - Financial Times

(The EU's fiscal rules need more than technical tweaks)

■ 미국의 공급차질,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은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 - WSJ

(Supply-Chain Problems Show Signs of Eas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